

—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 맑고 향기롭게

2015

10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움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 頂

사나이의 숨겨진 마음, 치유하는 기쁨, 조그마한 우주의 아름다움, 수줍은 영혼의 빛, 법의 정수, 자연의 스승, 이 세상에 꽃피는 청정, 다행히도, 法頂의 맑고 향기로운 삶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매(70x46) • 장천 김성태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 2015 / 10

다시 읽는 산방한담	04	침묵에 기대다
처음 마음으로	08	진리는 말이 없다
법정스님 책 속의 책	13	눈을 감고 보는길
숨어서 피는 꽃	16	지하철에서 만난 사람들
따뜻한 이야기	20	아들아, 보아라
아름다운 마무리	24	10월 결연대상자 - 유정자 어르신
옛날의 금잔디	26	사라진 고향
나를 다시 세워주는 인연들	30	天地不仁 天道無親
참교육 이야기	34	인스턴트식품, 식품첨가물 그리고 학교급식
내 마음속 풍경	38	여든 둘 시아버지에게 청소를 시키는 이유
사색의 뜰	41	나눔 실천 이야기
실천하며 삽시다	44	오염 식품을 제한하는 '먹지마 건강법'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45	중앙모임 소식 / 지역모임 소식
길상사 소식	50	

### 맑고 향기롭게 모임은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5년 10월 1일 발행 / 통권 248호 / 등록번호 라08708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발행인 및 편집인 이상조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엄현경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부산모임 : (051)898-2672~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  
 대구모임 : (053)753-8883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mailto: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mailto:kilsangsa@hanmail.net)

## 침묵에 기대다

글·법 정(法 頂)

가을 바람이 선들거리면 불쑥불쑥 길을 떠나고 싶은 충동에 산거(山居)를 지키고 있기가 어렵다. 그리고 맨날 똑같은 먹이와 틀에 박힌 생활에 더러는 염증이 생기려고 한다. 다른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지내다가도 해마다 10월 하순께가 되면 목은 병이 도지듯 문득 나그네길을 떠나고 싶다.

그날도 점심공양을 끝내고 세상 소식 좀 듣다가 여느 때처럼 틀에 나와 장작을 패고 있었다. 오동나무와 후박나무에서 마른 바람결에 푹푹지는 낙엽을 보고 있으니 더 지체할 수가 없었다. 서둘러 짐을 챙겨가지고 길을 떠나오고 말았다.

삶이 하나의 흐름이라는 걸 실감한다. 그 어떤 형태의 삶이라 할지라

도 틀에 갇혀 안주하다 보면 굳어진 다. 굳어지면 고인 물처럼 생기를 잃는다. 사람은 동물이라 움직임이 없으면 무디어지고 또한 시들고 만다. 살아 있는 것은 무엇이든 모두가 움직이고 있다. 변화가 없는 삶은 이내 침체되고 무기력해진다. 그리고 진부하고 지루해지게 마련이다. 생활에 리듬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 같다.

다행히 우리 같은 종류의 인간들은 걸리적거리는 관계의 이웃이 없기 때문에 마음먹은 대로 손쉽게 떠나올 수 있다. 물론 자기 자신의 무게 말고도 공동체의 무게에 대한 연대감이라는 짐을 지고 있긴 하지만.

혼자서 나그네가 되면 가장 투명하고 순수해진다. 낯선 환경에 놓여

있을 때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눈을 뜬다. 자기 모습이 뚜렷이 드러난다. 개체가 된다는 것은 곧 자유로워지는 것. 그리고 온전한 휴식을 누릴 수 있다. 사람은 이와 같은 휴식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축적하게 되고, 일을 통해서만 휴식을 얻을 수가 있다. 평소에 일이 없는 사람들은 진정한 휴식도 누릴 수 없다. 휴식과 일은 그런 상관관계를 지닌다.

이제 새삼스럽게 구경거리를 찾아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할 필요는 없다. 어디를 가나 토막난 비좁은 땅덩이에서는 거기가 거기이고 비슷비슷한 모습들이니까. 그 고장의 냄새를 맡는 일로써 나그네의 시장기 같은 것을 채우면 된다.

표현은 ‘냄새’라고 했지만 또 다른 말을 쓴다면 분위기를 느끼는 일일 것이다. 낯선 고장에 가면 우선 시장에 둘러 보라. 거기 가면 그 고장 특유의 말씨가 있고 생활이 있고 인정과 습속과 빛깔이 있다. 그 말씨와 생활과 인정, 습속, 빛깔이 그 고장

의 분위기를 이룬다.

이런 분위기를 빈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머리로서가 아니라 텅 빈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머리는 어떤 의미에서 불순하다. 따지고 캐고 의심하고 자꾸만 묻기 때문이다. 그 같은 잣빛 이론과 논리가 우리를 지금껏 피곤하게 하면서 마음을 열지 못하도록 방해해 해왔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트인 사람이 될 수 없다.

전문가들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는 한평생을 두고 우리가 가진 능력의 5퍼센트밖에 쓰지 않는다고 한다. 이걸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다. 어째서 우리가 지닌 무한한 잠재력 가운데서 겨우 5퍼센트밖에 쓰지 못한단 말인가. 그것은 마음이 겹겹으로 닫힌 채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관계와 사물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머리로서 따지고 쪼개고 의심하면서 거기에 이유를 달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불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텅 빈 마음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

마침 불일도 있어 부산에 내려갔다가 아침 일찍 자갈치시장을 들렀다. 언제부터 한번 들르고 싶은 곳이었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큰마음 먹고 들르게 되었다. 생선을 경매하는 이 자갈치시장은 분명히 부산 특유의 분위기이고 명물이다. 뭐라고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노래하듯 숫자를 읊고 수화手話로 말하는 경매 풍경은 단 세상 일처럼 느껴진다. 바로 그 곁에는 즐비한 생선가게.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인연이 먼 생선이지만, 거기 비릿비릿한 생의 열기 같은 것이 넘쳐 있어 아침 바닷가를 더욱 신선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회사의 사무원이나 관공서의 공무원에 견주면 생선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당당한 삶을 이루고 있는지 한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머리로 사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살고 있다. 그들은 관념적인 인간이 아니라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탄탄한 사람들이다. 곁에서 보기만 해도 생의 열기

가 묻어오는 것 같다.

어제는 모슬포에서 선창 쪽으로 가는 길목 동일리東日里 바닷가에서 수평선으로 지는 장엄한 일몰을 '참배'했다. 굳이 참배라는 말을 쓴 것은 그 어떤 종교적인 의식보다도 맑고 고요하고 숙연한 침묵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자연은 진실로 신비롭고 아름답다.

풀 끝에 맺힌 이슬만 하더라도 그렁고, 해가 지는 모습과 저녁노을만 하더라도 그지없이 신비스럽고 아름답다. 추한 것은 우리들 인간뿐인가 싶으니 자연 앞에 서기가 조금은 미안하다.

한라산 자락마다 억새풀이 허영계 은발을 휘날리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목장에서 양떼들이 혹은 말들이 자유롭게 풀을 뜯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때, 험벗고 때묻고 초라한 존재는 갈 데 없는 우리들 인간이구나 싶었다.

모든 존재는 다 자기의 분수대로 있을 자리에 있으면서 우주적인 조

화를 이루고 있는데, 사람만이 그 조화에서 이탈하려고 자꾸만 몸부림을 치고 있다. 같은 인간끼리 미워하고 싸우면서 그 조화와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존재는 묵묵히 우주 질서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너무 떠들면서 살벌하다. 오늘날 지구가 곳곳에서 갖은 형태로 폭발을 하고 있는 것도,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우면서 분수밖의 행동으로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그 메아리가 아닌가 싶다.

우리가 인간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은 더 물을 것도 없이 사랑다운 사람이 되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 자체가 확고한 기반 위에 서야 한다. 안팎으로 어지러울 때에는 신앙인이 아니라도 기도할 줄을 알아야 한다.

기도는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귀 기울이는 일이다. 입을 다물어야 깊은 뜻을 지닌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침묵은 근원으로 돌아가는 길이니가.

이따금 우리들은 자기 자신을 탐구하기 위해 침묵의 세계에 기댔 필요 있다. 그럼으로써 우주의 조화에 동참할 수 있다. 1983

- 물소리 바람소리 중에서

### 의류 리사이클링 소모임 강좌 참가자 모집

가정에서 입지 않는 의류를 재활용하여 생필품으로 재순환하여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살리자는 취지로 무료 강좌를 매주 금요일 진행합니다.

- 강사 : 김영숙(의류 리폼 봉사자)
- 일정 : 매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간 정도)
- 자격 : 맑고 향기롭게 회원&봉사자, 길상사 신도
- 인원 : 최대 5명의 소모임으로 2개월 과정(8차 진행 예정)
- 장소 : 길상사내 세계일화실
- 내용 : 참가자가 안 입는 옷(청바지, 남방 등)을 가져와 2개월 동안 손바느질, 미싱을 활용한 리폼 방법을 배우고 공유하여 각자 가정에서 환경을 살리는 생활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 문의 : 중앙모임 사무국(02-741-4696)

## 진리는 말이 없다

글·덕 운(德 耘)

부처님께서는 <대반열반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아, 너희 비구들은 자신을 의지처로 하고 자신에게 귀의할 것이며 타인을 귀의처로 삼지 말라. 또 진리를 의지처로 하고 진리에 귀의할 것이며, 다른 것에 귀의하지 말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나약한 존재로 생각하고 자신외의 절대적인 존재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절대적 존재도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낸 허구적 존재이지 실체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실체 없는 절대적 존재를 만들어 그것에 맹목적으로 기대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무상(無常)한 것입니다. 그 무상(無常)한 어떤 것에 의미

를 부여하고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허망한 것입니다.

자신이 유약하고 보잘 것 없다고 하는 그 자신 속에 절대적 신성(神性)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향하는 마음을 안으로 돌려 내적 성찰을 해 나가야 합니다.

자기 속에 불성(佛性)의 존재를 철저히 믿는 것, 그것이 신심(信心)입니다. 그 불성의 존재를 체득해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정진(精進)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경에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리에 대해 너희들에게 설(說)했던 가르침을 잘 유지하고 수행

해야 한다. 청정한 수행과 진리가 이 세상에 오래 머물며,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안락의 바탕이 되도록 하여라. 내가 설한 진리와 깨달음은 중생에게 이익과 안락을 준다. 즉 사념처, 사정근, 사신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인 삼십칠 조도품이니라.”

부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명심해서 들어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결국 사라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열심히 정진하여 수행을 완성하도록 하여라.”

부처님께서 마지막까지 비구들을 위하여 고구정녕 수행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요즈음은 자칭 도(道)를 깨달았다는 사이비 종교인이 많습니다.

얼핏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과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닌 것입니다. 유사하게 논리를 세워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이비 종교에 빠지면 정신이 황폐해지고 결국 악도에 떨어지는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재물은 없어지면 다시 모으면 되지만 정신은 한번 왜곡되어 잘못되어지면 다시 되돌리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요즘 같은 말법시대에는 선지식을 만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선지식을 만나기 어려울 때는 부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도를 이룬 조사스님들을 귀감으로 삼고 그에 따라 수행해나가야 합니다.

경전에서는 진리를 설하는 선지식(불보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불보살은 항상 세 가지 방법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때문이다.

세 가지 방법은 필경언어(畢竟軟語), 필경가책(畢竟呵責), 연어가책(軟語呵責)이다.

첫째 필경언어(畢竟軟語)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드러운 말을 사용하

는 것이다.

둘째 필경가책(畢竟呵責)은 꾸짖어야 할 때 반드시 꾸짖는 것이다.

셋째 연어가책(軟語呵責)은 부드럽게 말해야 할 때와 꾸짖어야 할 때를 잘 구별하여 그때그때 시기에 맞춰 중생을 대하는 것이다.

불보살을 의사라고도 하는데, 병을 알고 그에 맞추어 약을 처방해 주기 때문이다. 용한 의사가 의술을 잘 알아서 먼저 병의 증세를 보고, 그것에 맞추어 약을 준다. 불보살도 그와 같아서 범부에게 세 가지 병을 있음을 아는데 바로 탐진치 삼독이다.

탐욕의 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백골관이나 부정관(不淨觀)을 사용하게 하고, 성내는 사람에게는 자비관(慈悲觀) 수행을 하게 한다.

또 어리석은 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12연기를 관(觀)하게 한다.

이와 같은 불보살님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불보살님들이 설한 경전에 바탕을 두고 수행(修行)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혹 선지식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법문을 들을 때도 먼저 불보살의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잘 판단하고 선지식이라는 확실한 판단이 설 때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행이란 처음이 잘못되면 영원히 어긋나고 마는 것입니다.

항상 정도(正道)에 입각해서 수행해가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견해를 잘 세워야 합니다.

정견(正見)이 설 때 수행이 바르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첫출발이 잘못되면 나중에는 건잡을 수 없게 됩니다.

첫발심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수행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4년 동안 이 자리에서 떠들어 왔지만 본래자리에서 보면 쓸데 없는 황설수설인 것입니다.

수행하는 사람은 소리 없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진리는 말이 없습니다.

말없는 말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진리와 좀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마거사와 문수보살이 법담을 나눌 때 문수보살이 말로써 말 없는 진리를 보였지만 유마거사는 침묵으로써 그 자리를 보였던 것입니다.

선법(禪法)이 부처님 이래로 27대 조사를 거쳐 달마대사를 통해 동토(東土)에 육조혜능 스님으로부터 5가칠 종이 벌어지면서 발전해 왔고 우리나라에는 임제법통이 전해져왔습니다.

이러한 조사선의 법맥이 우리나라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사선의 요점은 화두참구에 있는 것입니다.

근간에 근본불교가 들어와서 그에 따라 수행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정통 선맥은 화두선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화두 공부에 대해서 몽산 법어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바로 모름지기 본분을 의지하여 법다이 하여사 비로소 옳으리라. 반드시 본참공안상에 의정을 두리니 큰 의심 끝에 반드시 큰 깨달음이 있으리니, 천의만의를 아울러 한 의심

을 지어서 본참상에 판단할지니라. 만약 언구(言句)를 의심하지 않으면 이것이 큰 병이니라. 반드시 모든 인연을 다 버리고 사위의(수행자의 생활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네 가지의 몸가짐)와 열두째 가운데에 다만 화두를 잡아 빛을 돌이켜 스스로 불지니라.’

이와 같이만 공부를 해나간다면 결정코 발명(發明)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또 마조 스님이 말씀하시길 “사람들이 선(善)을 취하고 악(惡)을 버리고 공(空)을 관하고 정(定)에 들어가면 곧 조작(造作)에 속하고 다시 만약에 밖을 향하여 달려 구한다면 더욱 성글어지고 더욱 멀어진다. 다만 삼계에 대한 마음을 다할 뿐이니라. 일념망상(一念妄想)이 생사(生死)의 근본이니 다만 일념망상만 없으면 곧 생사의 근본도 없어지느니라.” 하셨습니다.

결국 마조 스님의 말씀은 일념망상(一念妄想)이 없어지는 것을 도(道)

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일념망상이 삼계윤회의 시초가 되고 시비선악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도 다 조작심(造作心)으로 생사윤회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일념망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인가?

보고 듣는 어떤 것에도 미혹(迷惑)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미혹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그대로 무위(無爲)

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길상사 신도로서 자공심을 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익히고 실천하는 참된 불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되시길 바랍니다.

- 불기 2559년 8월 초하루  
(2015년 9월 13일)

### 노인이 웃는 행복한 세상을 위한 동전 모금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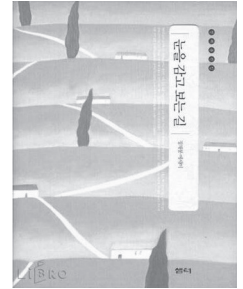
최근 한국사회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1인 가구, 고독사, 무연 사회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독거노인의 자살예방을 위하여 '아름다운 마무리' 기부문화 캠페인과 더불어 동전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모여진 동전은 독거노인의 생계비와 난방비,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사용되며, 채워진 저금통은 맑고 향기롭게 사무국이나 길상사 중무실로 직접 가져오시거나, 신한은행 100-013-787953(맑고 향기롭게)으로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 문의 : (사)맑고 향기롭게 02-741-4696



## 눈을 감고 보는길

정채봉 지음 / 쌤터



정채봉님의 책에 전에 없이 이런 글을 쓰게 된 것을 나는 기쁘고 고맙게 생각한다. 작년 이맘때, 그렇다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 충격에 한동안 할 말을 잊었다. 몇 차례 편지로 또는 말로 음주에 대해 잔소리를 해온 터라 드디어 올 것이 왔는가 싶었다.

환자복을 입고 반쪽이 되어 병상에 누워 있는 그를 대하자 불안했던 생각이 얼마쯤 가시었다. 그 이유는 그의 눈망울과 그 방안의 분위기에 어두운 구석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내 경험에 의하면, 병상에서 다시 일어설 사람과 일어서지 못할 사람은 그의 눈망울과 그 병실의 분위기가 의사의 말보다 더 잘 암시해 주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작가도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일찍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에 맞부딪힌다. 그때마다 인생이 기우뚱하고 동요를 일으킨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충격 앞에 어떤 사람들은 절망과 좌절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충격을 조금씩 받아들이면서 헤쳐 나간다. 여기 생사의 갈림길이 있을 것이다. 속이 찬 사람들은 크게 앓고 나면 그 삶에 무게가 실리고 보다 겸허해진다. 그는 병상에서 그의 천주님에게 고행 바다와 같은 푸른 기도를 올린다.

태초의 기운을 지니고 있는 바다를 저에게 허락하소서, 라고, 바다의 그 단순성과 바다의 가슴을, 그리고 넘치지 않는 겸손과 부족함이 없는

여유를, 향시 움직임으로써 써지 않는 생명을 염원한다.

정채봉님의 그 선량하고 투명한 정서는 고향과 할머니의 사랑으로 빛어졌을 것 같다. 남도의 정답고 끈끈한 언어와 인정이 그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의 눈매 깊숙이는 외로움의 그늘이 서려 있다. 이런 그의 모습은 그의 글 곳곳에 아침이슬처럼 영롱하게 맺혀 있다. 이따금 내 곁에서 자신의 속의 말을 내비칠 때, 그가 내 가까운 살붙이처럼 가슴이 짱하면서 안쓰럽게 여겨질 때가 있다. 며칠 전 보내 온 엽서에는 순천에 가서 할머니와 어머니의 묘 이장을 하고 돌아왔다고 했다. 묘지가 산업 도로로 편입되는 바람에 옮기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면서 다음 같은 사연을 적고 있다.

‘기억에 없는 어머니와의 첫 만남이 유골로 이루어지게 되어 눈물을 좀 흘렸습니다. 저의 나이 든 모습이 스무 살의 어머니로서 가슴 아파하실까 봐 머리에 검정 물을 들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연을 읽고 내 눈시울에도 물기가 배었다.

저 지난주 성북동 절에서 오랜만에 만났을 때 그전보다 훨씬 건강해진 모습을 보고 나는 무척 반가웠다. 그의 안에서 새로운 기운이 솟아오르고 있는 것 같았다. 고향 바다와 같은 푸른 기도의 힘이 솟는 것 같았다.

〈눈을 감고 보는 길〉은 그의 명 때움을 기리는 책이기도 하다. 가까운 이웃들이 이 책의 출간을 함께 기뻐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내 자신 일찍이 안 하던 짓을 그의 청에 기꺼이 선뜻 따른 것도 다시 건강을 되찾은 그를 무슨 일로든 거들고 싶어서다.

작년 이맘때 조마조마했던 일 돌이켜 보고 고맙고 기쁜 나머지 이 책에 사족을 붙인다.

- 〈눈을 감고 보는 길〉  
책머리에 쓰신 법정 스님의 글

스님, 하늘빛과 물빛이 시릴 만큼 푸른 가을날의 아침입니다.

이 맑음 속에서 안녕하옵신지요?  
(중략)

스님, 정말이지 저는 우두커니 서있는 저 바위섬을 닮고 싶었습니다. 스님께서도 찾아주셨던 병상에 있었을 때 저는 참 많이도 우두커니 앉아 있곤 했었지요. 때때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만, 저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 그렇게 우두커니 앉아 있었던 것이라고 이제야 솔직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병실에, 그것도 중환자실에 있어 본 사람들은 압니다. 얼마나 생각 자체가 괴로운 것인지를.

생각으로 죽음을 짓고 생각으로 지옥을 이루기도 합니다.

생각에 의해 이별을 하며 눈물짓고, 생각에 의해 오해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기도 합니다. 이런 번뇌가 잠을 쫓아 버린 새하얀 날밤의 고통은 육신의 아픔보다도 더하더군요. 그러기에 사람들은 생각의 빈 집인 마음을 숨겼다고도 하고, 마음을

빼앗겼다고도 하며 마음을 잃었다는 표현도 하는 것이겠지요.

- 마음에 상처 없는 사람은 없지요  
〈눈을 감고 보는 길〉 중에서

소년의 마음을 잃지 않고 티 없이 맑게 살다 2001년 1월 눈 오는 날 짧은 생을 마감하고 저 세상으로 간 정채봉 시인.

그의 산문집〈눈을 감고 보는 길〉은 읽는 이의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합니다.

이 책은 1998년 11월 간암이 발병하여, 죽음의 길목에 섰던 그가 처절한 투병 중에서도 손에 펜을 놓지 않고 자신이 손수 겪은 아픔과 번뇌를, 그리고 삶에 대한 강렬한 의지와 세상고통을 어루만지는 따뜻함을 고스란히 담은 44편의 동화 같은 글들을 수록한 것이다.

법정 스님의 말처럼 시인의 모습이 글 곳곳에 아침이슬처럼 영롱하게 맺혀있습니다.



## 지하철에서 만난 사람들

글 • 김정희(한국부름의전화 대장)

영상 제작을 하고 있는 지인을 만나기 위해 양재동에 가는 길이었다.

여의도에서 양재동까지 가려면 지하철을 2번이나 환승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대중교통수단으로 지하철 이상 편리하고 빠른 것이 없을 것 같아 지하철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평소에 자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하철 이용이 매우 서툴러 엉뚱한 곳까지 갔다가 되돌아오곤 했던 경험이 있어 두려움 같은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중교통수단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만 실은 주로 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있다.

여의나루역에서 5호선 지하철을 이용하여 영등포구청역에서 2호선으로 환승한 다음 교대역에서 3호

선으로 갈아타기 위해 2호선에서 막 내렸을 때 앞서가는 인파 속에 흰 지팡이가 보였다.

본능적으로 그 지팡이를 든 사람에게 다가갔다. 지팡이의 주인은 젊은 청년이었다.

“부름의전화 봉사자입니다. 도와드릴까요?” 미처 대답도 듣기 전에 팔을 그 청년에게 내밀었고 청년은 흰 지팡이를 접어 가방과 함께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내 팔을 잡고 익숙하게 걷기 시작하였다. 청년도 3호선으로 갈아타야 한다고 했다.

청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인파를 따라 계단으로 한 발을 옮겼다. 그런데 갑자기 청년은 내 팔에서 손을 놓으며 경계하는 몸짓으로 나

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였다.

3호선으로 환승하려면 계단으로 오르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해서 발생한 실수였다. 더는 나를 믿으려 하지 않는 것 같았다.

“부름의전화 대표 김정희”라고 다시 한 번 나를 소개하자 그제야 방송에서 들었던 목소리라며 안심하는 눈치였다.

그 청년의 안내를 받으며(?) 3호선 승강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열차를 환승했다. 청년은 남부터미널역에서 하차하여 용인까지 버스로 가서 용인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한참을 걸어야 집에 갈 수 있다고 했다. 용인에서 방배동에 있는 신학교에 다니기 위해 날마다 그렇게 몇 번씩 지하철을 타고, 다시 버스를 갈아타는 어려운 길을 스스로 견고 있었다.

“그렇게 어렵게 신학교를 다녀야만 하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다. 나는 그 사람의 믿음에 머리가 숙여졌다. 중

교는 다르지만, 그 청년의 신앙심이 존경스러웠다. 우리 불자 중에 그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남부터미널에 도착했다. 용인행 버스를 태워 주겠다고 했더니 손사래를 치며 열차에서 내려 정확하게 계단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 청년의 뒷모습이 너무도 크고 위대해 보였다.

양재동에서 지인을 만나 업무를 마치고 집에 오는 길도 지하철을 이용하기로 하고 3호선에 승차했다. 지하철은 붐비지 않아 자리가 있었다. 자리에 앉자 당당하게 계단을 올라가던 시각장애인 청년의 모습이 떠올랐다. 무사히 집에는 도착했을까? ‘용인 행 버스만이라도 태워줬더라면 좋았을걸’ 하는 후회가 되었다. 그렇게 그 청년 생각을 하는 동안 지하철은 내가 환승해야 할 교대역을 지나고 잠원역을 향하여 달리고 있었다. 아차! 오늘도 실수를 했구나! 내 친김에 경복궁역에서 하차하여 불일을 보기로 마음먹었다.

비로소 청년의 생각에서 벗어나 주변을 살펴보았다.

그때 눈길이 멈추는 사람들이 있었다. 어머니인듯한 중년의 부인과 초등학교 학생일 것 같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 왔는지 서투른 발음으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젊은 사람들이 왜 저 자리에 앉아 있어?”

장애인 노약자 지정석에 눈길을 주며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었다. 어머니는 “노인이나 장애인이 없을 때는 앉어도 되는 거야” 했다. 아이들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며 몇 구간을 더 지났을 때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승차하여 노약자 지정석에 앉아 있는 젊은이 앞에 섰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전혀 요동하지 않았다.

“엄마, 저기는 노인들이 없을 때만 앉어도 된다고 했잖아”

어머니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며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갔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어쩔 수 없는지 다른 곳으로 가서 자리를 정했다.

금호역에 이르자 사람들 틈에서 남학생이 안으로 들어왔다. 시각장애인 학생이 틀림없었다. 행동이 민첩하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나는 그 학생을 데리고 경로석으로 가서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젊은이에게 시각장애 학생에게 자리를 양보하면 좋겠다고 정중하게 말을 했다. 젊은이들은 멧쩍은 표정을 하고 다른 곳으로 가고 두 명의 어르신과 시각장애 학생이 그 자리에 앉았다. 나는 그 앞에 서서 학생을 살펴 보았다. 외형으로는 전혀 시각장애인이라는 것을 알 수 없었다.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던 중 망막색소 변형으로 시각장애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맹학교 진학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서울 맹학교에 가는 길이라고 했다.

안쓰러운 시선을 보내며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어르신 한 분이 앉아있는 학생의 앞으로 다가왔다. 아무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

시각장애학생을 못마땅하게 노려

보던 어르신은 갑자기 큰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니까. 도대체 부모라는 게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어른을 공경할 줄 아나, 미친 세상이라니까”

학생이 앉아있는 좌석 앞에 서서 화가 난 음성으로 얼굴까지 벌겋게 물들이며 큰소리를 지르신다. 시각장애 학생은 파랗게 질린 채 울상을 하고 일어설지도 앉아있지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줄지에 어른도 몰라보는 버르장머리 없는 사람

이 되고 말았다.

시각장애인이 된 것도 서러운데 험한 소리까지 듣게 되었으니 학생의 마음이 오죽할까. 안타까운 마음에 어르신에게 시각장애학생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러자 “미안하다”는 한마디 말도 없이 험악한 표정도 풀지 않은 채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학생은 장애의 고통보다 더 큰 상처를 받았을지 모른다.

이 일은 그 학생이 앞으로 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당해야 할 일의 시작에 불과할지 모른다.

### 월간 '맑고 향기롭게'와 뜻을 함께하실 작가를 모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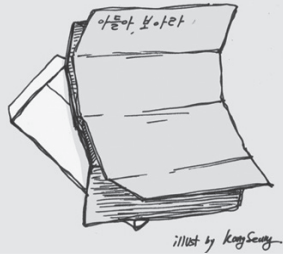
#### • 모집 부문

- 창작 문학(수필, 에세이, 칼럼, 시, 카툰, 사진)
-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글

#### • 모집 안내

- 작가의 의향에 따라 연재물은 원고료를 지급하며, 회원이나 독자의 글(단편)은 채택 될 시 귀한 책 한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 내용이 아무리 훌륭해도 맞춤법·띄어쓰기 주의, 컴퓨터 용어, 과한 한자 사용, 종교 비판 및 폄하는 피해 주십시오.
- 회원 투고, 작가의 문학작품은 수시접수 및 문의 받습니다. 법인사무국 전자우편(clean94@daum.net)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원고를 보내주실 때는 본인의 소개(이름, 약력, 연락처, 주소, 전하고 싶은 말씀)를 적어 보내주세요.
- 원고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아들아, 보아라



나는 원체 배우지 못했다. 호미 잡는 것보다 글 쓰는 것이 천만 배 고되다. 그리 알고, 서툴게 썼더라도 너는 새겨서 읽으면 된다. 내 유품을 뒤적여 네가 이 편지를 수습할 때면 나는 이미 다른 세상에 가 있을 것이다.

서러워할 일도 가슴 칠 일도 아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을 뿐이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닌 것도 있다. 살려서 간직하는 건 산 사람의 몫이다. 그러니 무엇을 슬퍼한단 말이나?

나는 옛날 사람이라서 주어진 대로 살았다. 마음대로라는 게 애당초 없는 줄 알고 살았다. 너희를 낳을 때는 힘들었지만, 낳고 보니 정답고 의지가 돼서 좋았고, 들에 나가 돌밭을 고를 때는 고단했지만, 밭이랑에서 당근이며 무며 감자알이 통통하게 물려나올 때, 내가 조물주인 것처럼 좋았다.

깨꽃은 얼마나 예쁘더냐, 양파 꽃은 얼마나 환하더냐? 나는 도라지 씨를 일부러 넘치게 뿌렸다. 그 자태 고운 도라지꽃들이 무리 지어 넘실거릴 때, 내게는 그곳이 천국이였다. 나는 뿌리고 기르고 거두었으니 이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뜻이 없다. 그런 걸 내세울 지혜가 있을 리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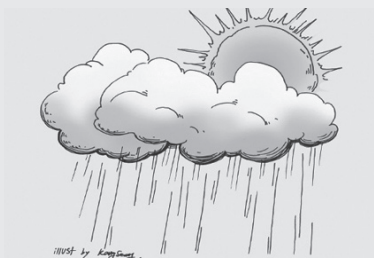
나는 밥 지어 먹이는 것으로 내 소임을 다했다. 봄이 오면 여린 썩을 뜯어다 된장국을 끓였고 겨울에는 가을 무를 썰어 칼칼한 동태 탕을 끓여냈다. 이것이 내 삶의 전부다. 너는 책 줄이라도 읽었으니 나를 헤아릴 것이다.

너 어렸을 적, 네가 나에게 멧힌 듯이 물었다. 이장 집 잔치 마당에서 일 돕던 다른 여편네들은 제 새끼들 불러 전 나부랭이며 유밀과 부스러기를 주섬주섬 챙겨 먹일 때 엄마는 왜 못 본 척 나를 외면했느냐고 내게 따져 물었다.



나는 여태 대답하지 않았다. 높은 사람들이 만든 세상의 지엄한 윤리와 법도를 나는 모른다. 그저 사람 사는 데는 인정과 도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만 겨우 알 뿐이다. 남의 예식이지만 나는 그에 맞는 예의를 보이려고 했다. 그것은 가난과 상관없는 나의 인정이었고 도리였다.

그런데 네가 그 일을 서러워하며 물을 때마다 나도 가만히 아팠다. 생각할수록 두고두고 잘못된 일이 되었다. 내 도리의 값어치보다 네 입에 들어



가는 딱 한 점이 더 지엄하고 존귀 하다는 걸 어머니로서 너무 늦게 알았다. 내 가슴에 박힌 멍울이다. 이미 용서했다라도 어머니를 용서하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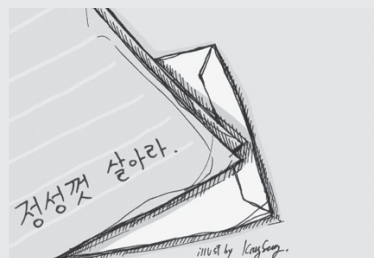
네가 어머니 사는 것을 보았듯이 산다는 것은 종잡을 수가 없다. 요망하

기가 한여름 날씨 같아서 비 내리겠다 싶은 날은 해가 나고, 맑구나 싶은 날은 느닷없이 소낙비가 들이닥친다. 너는 내가 세운 뜻으로 너를 가두지 말고, 내가 정한 잣대로 남을 아프게 하지도 마라. 내가 아프면 남도 아프고, 남이 힘들면 너도 힘들게 된다. 해롭고 이롭고는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아무 탈이 없을 것이다.

세상 사는 거 별거 없다. 속 끓이지 말고 살아라. 너는 이 어미처럼 애태우고 참으며 제 속을 파먹고 살지 마라. 힘든 날이 있을 것이다. 힘든 날은 참지 말고 울음을 꺼내 울어라. 더없이 좋은 날도 있을 것이다.

그런 날은 참지 말고 기뻐하고 자랑하고 다녀라. 세상 것은 욕심을 내면 호락호락 곁을 내주지 않지만, 욕망을 털면 봄벌레에 담벼락 허물어지듯이 허술하고 다정한 구석을 내보여 줄 것이다. 별것 없다, 체면 차리지 말고 살아라.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없고 귀천이 따로 없는 세상이 니네가 너의 존엄을 세우면 그만일 것이다.

아녀자들이 알곡의 티끌을 고를 때 키를 높이 들고 바람에 까분다. 누를 고를 때는 채를 가까이 끌어당겨 흔든다. 티끌은 가벼우니 멀리 날려



보내려고 그러는 것이고, 누는 자세 히 보아야 하니 그런 것이다.

사는 이치가 이와 다르지 않더구나. 부질없고 쓸모없는 것들은 담아두지 말고 바람 부는 언덕배기에 올라 날려 보내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면 지극히 살피고 몸을 가까이 기울이면 된다. 어려운 일이 없다. 나는 네가 남보란 듯이 잘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억척 떨며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괴롭지 않게, 마음 가는 대로 순순하고 수월하게 살기를 바란다.

혼곤하고 희미하구나! 자주 눈비가 다녀갔지만 맑게 갠 날, 사이사이 살구꽃이 피고수수가 여물고 단풍 물이 들어서 좋았다. 그런대로 관찮았다. 그러니 내 삶을 가여워하지도 애달파하지도 마라. 부질없이 길게 말했다. 살아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을 여기에 남긴다. 나는 너를 사랑으로 낳아서 사랑으로 키웠다. 내 자식으로 와주어서 고맙고 염치없었다. 너는 정성껏 살아라.

- 임태주 시인의 어머니의 편지글

살면서 무엇을 시기하거나 탐하지 마세요.  
당신에겐 보석보다 빛나고 생명보다 귀중한 그분이 계시니까요.  
지금 곁에 계신다면 더 아껴드리고, 곁에 계시지 않는다면,  
하늘에서 지켜볼 그분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가세요.

\* 출처 : 따뜻한 편지를 전하는 '따뜻한 하루'

## 10월 결연대상자 - 유정자 어르신

“돈 빌려준 사람한테는 미안한 마음에 고개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400만 원을 갚는 것이예요. 살면서 제일 무서운 건 채무랍니다. 식사는 간장에다 밥만 먹어도 괜찮습니다.”

유정자 어르신은 1997년도부터 빚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한 가정의 몰락의 역사를 담담히 들려 주셨습니다.

1997년 IMF로 인하여 유정자 어르신의 남편분은 주택사업에서 줄줄이 적자를 보다 파산합니다. 수원과 용인 일대에서 집을 지어서 팔았는데 공사대금과 건축자재를 받지 못하는 일이 속출하였지요. 전 재산인 집과 땅을 다 팔고도 모자라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2억이 넘는 부채 때문에 사기죄로 1년간 감옥살이를 하

기도 했습니다. 출소 후 재기를 노렸지만 오랜 근심 격정에 시달리던 끝에 남편은 대장암이 간으로 전이되어 2008년에 생을 마감합니다.

남은 채무는 두 아들과 딸에게 남겨졌습니다. 큰 따님은 회사에서 1,000만 원의 퇴직금을 미리 받아야 했습니다. 막내아들은 지금도 한 달에 30만 원씩 빚을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2년 전 만나고 아직 연력이 없는 첫째 아들은 이혼했습니다.

유정자 어르신은 한 달에 12만 원씩 6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같은 동네에 사는 채권자가 딱한 사정을 알고 원금은 400만 원만 갚으라며 줄여주었습니다. 어르신은 사회복지사에게서 개인 파산을 신청하면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지만, 차마 미안해서 그럴 수는 없다고 하십니다.

차상위계층인 유정자 어르신의 한 달 수입은 노인연금 20만 원과 시각 장애 2급으로 받는 장애연금 17만 원을 합한 37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 이자를 내고 나면 한 달을 생활하기가 벅잡니다. 갖가지 다양한 질환이 돈 먹는 하마이기 때문입니다. 왼쪽 눈은 30년 전에 실명을 했고, 오른 눈은 망막 중심부의 황반이 변해 시력장애가 생기는 황반변성이 찾아왔습니다. 치료받는데 안약과 진찰비로 한 달에 3만 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척추 측만증으로 똑바로 서 있지 못합니다. 10년 전에 용인 세브란스에서 처음 수술을 받고 4~5년 전쯤에 두 번째로 받았는데 허리가 펴지질 않습니다. 요즘은 재활병원에 다니는데 한 달 약값으로 30,800원, 진찰료 3,000원을 챙겨가야 합니다. 여기에 고혈압약과

고지혈증약까지 더하면 한 달 총 치료비만 10만 원이 넘습니다.

어르신은 나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고 있다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지요. 8년 전에는 구리 한양대 병원에서 왼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점심을 집 근처 복지관에서 해결하고 계십니다. 저녁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밑반찬 덕분에 수월하게 식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끝내 유정자 어르신은 아픈 속내를 드러내 보이셨지요. 잘 살 때 우체국 암보험을 들어 놓은 것이 있다며 빨리 암에 걸려서 치료받지 않고 죽어도 좋으니까 보험금 1천만 원으로 빚을 갚겠다고 하십니다.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에서는 모금을 통하여 유정자 어르신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13-787953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아름다운 마무리 사연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희망해'에서 희망모금으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 사라진 고향

글 • 윤언덕

내 고향의 행정 주소는 경상남도 김해군 김해읍 내동이었는데 그 지명은 근래에 김해시 내외동으로 바뀌었다. 할아버지는 제법 큰 농사를 지으셨는데 머슴을 셋이나 두었다. 큰 머슴, 작은 머슴, 풀머슴 등이다.

우리 옛 속담에 '늙은 쥐가 독 똥'이라는 말이 있다. 그런 일이 있었기에 생긴 속담일 것으로 여겨지는데 나의 할머니는 직접 보셨다고 했다. 어린 시절 나는 방학 때 큰집인 김해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는데 머슴방에 가서 가마니 짜는 것, 새끼 꼬는 것, 멩석 엮는 것 등을 자주 보았다. 할아버지 소유의 논밭이 많았고 집은 컸던 걸로 기억한다. 큰 채, 아래채(사랑채도 있는 것 같다) 또 별채가 있었고 또 뒷간채도 있었다. 뒷간 채

는 한쪽은 여자용이고 한쪽은 남자용인 걸로 기억한다. 아래채에는 큰 광이 있었는데 킁킁하고 무서웠다. 그곳에는 큰 독이 아주 많았다.

일곱 살이 되지 않은 우리들 꼬마들은 숨바꼭질이나 깡통 차기 할 때 광에 들어가서 숨으면 들키지 않았다. 광이 넓고 킁킁했고 또 빈 독들이 있어서 개구쟁이들은 큰 독에 들어가 숨었다. 꼬마들이 둘씩이나 들어가는 독이 있었고 그런 독에는 주로 곡식과 고구마, 감, 술 등을 넣어두었다. 그런데 쥐가 많았다. 또 큰 뱀(진대라고 했다)이 쥐를 잡아 집어삼키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가까이 가서 봐도 위험이 없었고 어른들은 그 뱀을 '찌금'이라고 해서 쫓아내지 않고

그냥 두었는데 내쫓으면 집안이 망한다는 것이다. 이 큰 뱀은 제멋대로 다녔는데 작은 방, 부엌으로, 광으로, 헛간으로, 심지어 지붕 위로 기어 다녔다. 쥐가 많으니 그런 뱀이 있었던 모양이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은 놀라시겠지만, 부엌의 시렁 위에 도사리고 있는 것도 보았다.

할아버지께서는 광이 붙은 방에 주로 기거하셨다. 할머니는 허리에 주머니와 함께 열쇠꾸러미를 차고 계셨는데 광을 열고 닫는 것은 할머니의 권한이고 큰어머니나 어머니, 숙모님 등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께 열어달래서 출입을 했다.

할머니는 쥐가 독을 똥하는 것을 직접 봤다고 하셨다. 한잠 자고 일어나셨는데 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문틈으로 자세히 들여다보신 것이다. 마침 달이 밝아 공기(환기) 창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와 광의 일부가 환했다고 한다. '뚝뚝'하는 소리가 나기에 유심히 보니 몇 마리 쥐들이 밑에서 받쳐주고 큰 쥐가 입에다 돌을

물고 독을 두드렸다. 어찌하는가 하고 가만히 두니 날이 새도록 계속되었다는 것이다. 그 쥐들이 독을 성공적으로 똥어서 곡식을 먹었다고 했는데 과연 사실인지는 모르겠다.

한 손엔 영어 단어장 들고  
가름쟁이 콩밭 사잇길로 사잇길로 시오리를  
가로질러  
읍내 중학교 운동장에 도착하면  
막 떠오르기 시작한 아침 해에  
함뼉 젖은 아랫도리가 모락모락 흰 김을 뽀으며 반짝이던,  
간혹 거기까지 잘못 따라온 콩밭 이슬 머금은  
작은 청개구리가 영롱한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팔짝 튀어 달아나던,  
내 생애 그런 기쁜 길을 다시 한번 걸을 수 있을까

- 이시영 시집

'마음의 고향4-가지 않은 길' 전문

할아버지는 할머니 몰래 이웃 동네 과수대 할머니를 방에 데리고 와서 주무시다가 할머니에게 들켜 봉변을 당하셨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

니 상당히 재미있게 사신 분이셨다. 할아버지는 내가 국민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다. 운명하시던 날 아침 대청마루에서 마당을 내다보시며 “마당에 웬 군인들이 이래 와 있노?” 하셨는데 순간 어린 나를 비롯해 모두들 마당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다. 사람이 숨을 거둘 때 저승사가 나타나다고 하는 속설이 있는데, 내가 직접 목격한 일이라 나는 그 말을 지금까지 믿고 있다.

이웃에 우리 집안과 친한 동네할머니가 한 분 계셨다. 아들이 셋으로 막내아들과 함께 그곳에 사셨는데 패물을 상당히 많이 갖고 계신다는 소문이 있었다. 특이하게도 주머니 하나에 귀한 보물을 넣어서 그 주머니는 항상 차고 있었다. 언제나 몸에서 빼지 않았던 것이다. 위의 두 할머니는 서로 자기 집에 모셔가려고 애를 썼다. 큰 할머니는 큰 할머니대로 모실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막내 할머니는 지금 자신이 모시고 있으니 그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며,

가운데 며느리의 주장은 이랬다. 딱 가운데 자식이니 자신이 맡는 게 이치에 맞다는 이야기였다.

세 며느리가 서로 모시려고 하니 즐거운 비명이었다. 팔십이 가까웠으니 이제 돌아가실 때도 얼마 남지 않았고 잘만하면 그 주머니에 든 보물은 자신의 것이 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으로 보인다. 그런데 막상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동작 빠른 큰 며느리가 재빨리 주머니를 챙겼다. 그런데 손아래의 두 며느리는 불만이 많았다. 큰 동서가 그 보물(?)을 혼자 다 차지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주머니를 장롱 속에 단단히 넣어두고 봉한 후에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그렇게 하고 장사지낸 다음 장롱을 열어보니 푹푹 말은 형겅에 싸여서 겹으로(주머니가 두 개) 싼 주머니 속에 든 것은 보물이 아니고 여러 색깔의 작은 돌멩이 몇 알이었다. 며느리들 속만 보이게 했던 유명한 동네의 일화이다. 동네의 글줄이나 읽었다는 문사는 이렇

게 이야기했다.

‘우리의 나이 많은 어머님들이여, 절대로 자식들에게 전 재산을 몽땅 주지 말지어다. 다 주고 나면 공일이 되는데, 어찌 앞의 그러한 극진한 대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불일이 있어 창원으로 가다가 나의 옛 고향인 김해시 내동을 경유하게 되었다. 어릴 적 추억 속의 초가집과 들녘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대신하여 그 자리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아파트 단지만 빼곡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데 그 자리가, 옛날 할아버지 집……. 아버님이 태어나고 자라나셨던 그 장소, 내 어릴 적 놀던 장소임을 아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제는 사라지고 없는 것들, 옛 선비는 산천은 유구한데 인물은 간 곳 없네라는 시를 읊었지만, 산천은 못 알아볼 수밖에 없는 현대 도시로 변했고 그리운 사람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 ‘아름다운 만남’ 함께할 청소년 봉사자 모집

‘아름다운 만남’ 자원 활동은 청소년 자원봉사자가 홀로 어르신 집을 월 1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말벗과 청소를 해드리고, 안마나 동네 산책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생동감과 발달함으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축된 어르신을 위로하고, 생의 의지를 돋우는 프로그램입니다.

본 모임은 어르신과 청소년 간의 1:1 결연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함께 할 청소년 봉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녀를 둔 회원님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天地不仁 天道無親

글 • 김지연(희곡작가)

미야지마(宮島)라는 섬을 아십니까?  
아마도 한국인 대부분에게는 낯  
선 이름일 이 섬은, 일본 3경의 첫번  
째로 꼽히는 곳이자 세계 각지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봄비는 유네  
스코 세계유산입니다. 히로시마에  
서 전철로 삼십여분, 그리고 다시 배  
를 타고 십여분이면 닿는 해안가의  
작은 섬 미야지마는 크게 아름다운  
모래사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암  
괴석이 즐비한 절경이 펼쳐진 곳도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 흔히 있는 여  
느 섬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미야지  
마를 유명하게 만든 것은, 해안가에  
서 있는 한 건물 때문입니다.  
미야지마구치(宮島口)에서 배를 타  
고 출발하면, 일렁거리는 물결 위로  
우뚝 서 있는 커다란 붉은 기둥 두

개가 대들보를 이고 있는 형상의 큰  
문을 볼 수 있습니다. 신사의 입구를  
알리는 도리이(鳥居)라는 것인데, 두  
기둥이 각각 60톤이 넘는 하나의 거  
대한 녹나무 원목을 통으로 써서 만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이가  
세워져 있는 방향을 따라 시선을 던  
지면, 해안에서 바다로 달려나올 것  
만 같은 건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 이쓰쿠시마신사(巖島神社)

해안을 따라 끝없이 길게 이어진  
북도는 만조가 오면 물에 기둥이 잠  
겨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듯한 신비  
로운 장관을 연출합니다. 간조가 오  
면 도리이 바깥까지 물이 모두 빠져  
나가버려서, 뿔을 걸어다니며 조개  
가 붙어 있는 기둥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이 독특한 구조의 이쓰쿠시마 신  
사는 헤이안(平安)시대에 세워져 천  
사백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  
다. 천사백년 전의 기술로 이러한 목  
조건물을 세웠다는 것도 대단하고,  
훼손 없이 유지하고 보수해왔다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전통이 잘 바  
뀌지 않는 것이 일본의 특성이지만  
특히나 이쓰쿠시마 신사는 여전히 경  
건한 신전의 모습을 하고 있고 신을  
모시기 위해 행해지는 각종 전통 공  
연들은 유명한 볼거리이기도 합니다.  
바다 위에 세운 건물답게, 무대 역  
시 바다를 배경으로 하늘을 무대 삼  
아 펼쳐져 있기에, 이곳에서 펼쳐지는  
전통 공연들은 별다른 장치나 조명이  
없어도 한없이 신비롭기만 합니다.

제가 이쓰쿠시마 신사를 처음 봤  
던 것은 십일 년 전, 바다 위에 동실  
떠 있는 무대가 있다는 정보를 접하  
고 “절마 그레봤지”라는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기대 없이 찾아갔었습니  
다. 아쉽게도 하루 차이로 공연을 볼

수 없었고, 폭우가 쏟아지는 텅 빈  
무대를 바라보며 마음으로 그 무대  
위에서 춤추는 신관들의 모습을 상  
상만 했었지요. 아쉬움이 너무 커서  
언젠가 꼭 다시 와서 보고 말겠다는  
다짐만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때는,  
내년이라도 당장 이 보기 드문 무대  
에서 벌어지는 공연을 보러 오겠다고  
결심했었는데 막상 다시 공연을 보러  
오게 된 것은 그로부터 딱 십 년 뒤였  
습니다. 가려고 할 때는 인연이 닿지  
않아 갈 수 없었는데, 잊어버리고 살  
던 어느 날은 일부러 한 것도 없이 그  
곳에 가 있게 되었습니다.

도리이 뒤로 서서히 넘어가는 석  
양을 배경으로, 전설 속의 영웅들  
을 모델로 한 탈을 쓰고 나와 검무  
를 추는 신관들의 모습을 느긋하게  
감상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경험이  
였습니다. 무용수의 발디딤새는 한  
없이 느리고, 음악은 파도소리와 섞  
여 들릴 듯 말 듯 잡히지 않는 곳까  
지 날아가고, 서서히 싸늘해지는 밤  
바람에 으슬으슬 떨리는 가운데에도  
어찌 설명할 수 없는 나른함에 폭 감



사이게 되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기다리던 이쓰쿠시마 신사 부가쿠(舞樂) 공연의 백미, 난릉왕(蘭陵王)이 나오는 순간, 무대 위를 지배하는 전율이라니. 난릉왕은 너무나 아름다워 적들에게 우습게 보였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가면을 쓰고 전장을 누볐다는 중국의 장군입니다. 그런 난릉왕의 이야기를 춤으로 풀어내는 무용수의 몸짓은 말 그대로 시공을 지배하는 듯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웅만하게 펼쳐지는 원시의 공연을 21세기에도 만끽할 수 있는 무대를 간직한 이쓰쿠시마 신사를 건립한 다이랴노 기요모리(平清盛)는 1118년에 태어난 일본의 무장입니다. 권력의 정점에 오른 그는, 왕족이나 고위귀족만이 될 수 있는 중국의 자리에 딸을 앉히고, 세 살배기 외손자를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어쩌나 막강한 권세를 누리며 살았는지, 그의 씨족인 헤이케가 아니면 사람도 아니다라는 말을 낳

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가 이쓰쿠시마 신사를 만든 이유도 바로 일족의 번영을 빌기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의 가문이 왕가와 혼인으로 연결되어 움직일 수 없는 굳건한 유대를 갖고 세세만년 복록을 누리며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그 소원을 위해 다이랴노 기요모리는 황금과 보석으로 장식한 경전을 만들어 신사에 봉납하기도 했고, 직접 불경과 경전들을 필사하여 신사에 모시기도 했습니다(일본은 일본 고유의 무속신앙인 신토와 불교를 혼합하여 숭배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밖에도 일족의 번영을 기원하며 다이랴노 기요모리가 신사에 봉납한 사치품들과 무구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으며, 이 모두는 현재 신사의 보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항상 반복된다는데, 그 이유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항상 반복적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신의 힘을 빌려 영원한 복을 누리려던 다이랴노 기요모리의 희망은, 사람의 원한

을 샀던 바로 자신 때문에 무너지니다. 반대파들에게 피의 숙청을 안기며 공포정치를 계속하자, 다이랴노 기요모리와 그 일족인 헤이케 가문에 반발한 사람들이 함께 뭉쳐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이랴노 기요모리 본인은 그 반란을 진압하려던 와중에 병에 걸려 죽고, 그 자식들은 모두 전사했으며, 아내인 다이랴노 도키코(平時子)는 파도 속에 극락정토가 있다고 말하며 남편이 억지로 왕을 만들었던 어린 외손자를 안고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본래 다이랴노 기요모리는 인품이 훌륭하며 인자하고, 그때까지도 일본에 존재했던 인신공양을 폐지하고 미신에 휘둘리지 않았으며, 아랫사람에게도 자애로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권력을 독점하려 하면서부터 사람이 변했고, 후세의 평가는 그를 악독한 역신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신사를 세웠던 사람이 어떻게 살다 어떤 최후를 맞이하였는가는 파도가 무심히 쓸어가버렸고, 지금 이

쓰쿠시마 신사는 여전히 숭배의 대상이며, 신사의 공연은 이어져가고 있고, 화려한 불경은 관람자들에게 찬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라는 바와, 그 마음이 일어나 하게 되는 행동과, 그 행동의 결과로 오는 응보는, 언제나 다른 방향 다른 결인가 봅니다. 그리고 보면 마음이 바라는 바를 행동에 옮기면 잘못될까 저어할 필요가 오히려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바른 법이 있어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그 법의 흐름이 있다면, 나만 잘되자고 아무리 날뛰어도 결국은 나만 망하게 될 테니까요. 다이랴노 기요모리가 사욕을 위해 세웠던 신사가 천사백년 뒤의 어느날 이렇게 고대의 공연을 온존하여 보여주는 귀한 공연장이 되고 중세 일본 역사의 증언이 될 줄을 그 때는 누가 알았을까요. 하늘은 누구도 편애하지 않고, 지은 것은 그대로 남는 법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둘 수 있다면, 삶은 후회만으로 가득하진 않을 텐데 말입니다.

## 인스턴트식품, 식품첨가물 그리고 학교급식

글 • 김용택(교육칼럼니스트)

식품업계가 낳은 20세기 최대의 걸작, 일본의 유명한 건강 저널리스트 이마무치 고이치가 인스턴트 라면을 두고 했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마무치는 덧붙인다. '21세기에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식품이라고... 왜 이런 극과 극의 평가를 받을까?

1인당 연간 소비량 80여 개, 해마다 전 세계에 5백50억 개가 팔려 나간다는 라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좋아해 세계에서 라면을 가장 많이 먹는 국민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됐다. 사람들은 라면을 이렇게 즐겨 먹으면서도 이 라면 껍봉에 깨알 같은 글씨로 쓰인 '인공조미료, 향료, 색소, 유허제, 안정제, 산화방지제, 점조제'와 같은 엄청난 식품첨가물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이런 식품첨가물이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 물질인지 알고 먹을까?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국일미디어)'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먹고 있는 인스턴트 식품을 비롯한 아이들이 즐겨 먹는 과자류들이 대로 먹어도 좋은지 의심이 든다. 어디 라면뿐인가.

"설탕은 독극물로 분류해야 한다."

"설탕의 과잉섭취는 범죄 심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설탕은 몸과 마음을 망치게 한다. 설탕은 마약이다."

"설탕은 식품으로 적당하지 않다."

과자류 속에 들어 있는 설탕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암 세포가 설탕을 먹고 산다.'느니 '설탕은 혈당을 급속하게 올린다.'느니 '저혈당증을 유발한다.'는 경고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성인병의 숨은 원인이요, 뼈를 약화시킨다는 경고도 보인다. 그런데 왜 우리 부모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설탕 덩어리인 과자를 입에 물고 살도록 할까?

설탕은 사탕수수나 사탕무와 같은 천연소재로 만들어졌다는 데 왜 해로울까?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그 달콤한 유혹이라는 책을 읽어 보면 설탕이 해로운 이유는 설탕을 만드는 과정에 있다. 설탕을 만드는 과정은 3단계 공정을 거치는데 1단계가 사탕수수 줄기에서 즙액을 짜내 걸쭉한 형태, 2단계가 각종 흡착제와 이온 교환수지 등을 이용 불순물 제거, 3단계가 재결정 과정을 거친다.

무엇이 문제인가? 설탕을 만드는 이 과정에 탄수화물이 제거된다는 사실이다. 설탕을 구성하는 포도당과 과당이 산성인데 대사과정에서 젖산

과 같은 산성 물질이 생겨나면 우리 몸이 산성화된다는 것을 뜻한다. 천연소재로 만들어진 설탕이 무해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정작 설탕에는 필요한 영양소는 없고 오히려 칼로리만으로 이루어져 비타민과 미네랄이나 축내는 천덕꾸러기다.

여름이면 입에 달고 사는 아이스크림과 학교 앞 슈퍼나 마트에서 언제든지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과자류는 어떤가?

이런 과자류 포장지에 어떤 식품첨가물이 들어 있고 그 첨가물이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 읽어 보고 사는 소비자들은 얼마나 될까? 아이들이 즐겨 먹는 초코파이의 경우를 보자.

초코파이는 초콜릿처럼 보이는 걸 부분, 초콜릿의 중간 부분인 파이, 마시멜로 크림인 아랫부분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 세 부분의 문제점은 정제당류가 너무 많이 들어 있다는 점과 제품의 3분의 1이 설탕과 정제 물엿이라는 점이다. 설탕의 유해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중에도 설탕이 아닌

과당이나 정제당은 안심하고 먹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랑하는 아이들이 30g짜리 초코파이 한 개를 먹는다면 10g 안팎의 정제당을 먹는 셈이다.

제일 윗부분은 초콜릿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초콜릿이 아니다. 코코아 버터를 짜내고 난 코코아 파우더만이 소량 들어 있을 뿐, 이 모조 초콜릿은 화학 처리한 '정제가공유지'다. '정제가공유지'는 수소첨가반응의 산물로 다량의 트랜스지방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라면과 초콜릿을 비롯한 과자류에는 어떤 식품첨가물이 들어 있고 얼마나 해로운지 한 번 살펴보자.

- **보존제** :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여 식품의 부패나 변질을 방지. ⇒ 간에 악영향, 발암성
- **살균제** : 식품을 살균 ⇒ 피부염, 고환위축, 발암성, 유전자 파괴
- **산화방지제** : 산소에 의한 지방이나 탄수화물 식품의 변질을 방지 ⇒ 발암성
- **착색제** : 식품의 색을 보기 좋게 함 ⇒ 간, 혈

- 액, 콩팥 장애, 뇌장애, 발암성
- **발색제** : 식품의 색을 선명하게 함 ⇒ 간암, 빈혈, 호흡기능 저하, 급성구토, 발한, 의식불명
- **탈색제** : 식품의 색을 하얗게 만듦 ⇒ 기관지염, 천식, 위점막 자극, 신경염, 순환기장애
- **감미료** : 설탕의 수백 배 효과로 단맛을 냄 ⇒ 소화기장애, 콩팥 장애, 발암성
- **화학조미료** : 식품의 맛을 강화 ⇒ 뇌혈관 장애, 성장호르몬, 생식기능, 갑상선 장애
- **팽창제** : 빵이나 과자를 부풀게 함 ⇒ 카드름, 납 등 중금속 중독
- **인정제** : 고체와 액체가 분리되지 않도록 결합 ⇒ 중금속 배출을 방해

우리가 매일같이 먹고 있는 가공식품 속에 든 식품 첨가물들이다.

이런 음식을 매일 먹고 사는 현대인들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요즘에는 부쩍 아토피며 성인병, 턱장애로 병원을 찾는 어린이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주의집중력이 떨어져 산만한 어린이, 공부는 열심히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 걱정하는 부모들이 있다.

왜 그럴까? 공부하기를 싫어한다

고 아이들을 나무라기 전 한 번쯤 먹거리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는 부모들은 얼마나 될까?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가 가공식품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까?

현대인은 식품첨가물을 하루에 보통 80여 가지를 섭취한다고 한다. 식품 첨가물은 극미량도 해롭다는데 이렇게 복합적으로 섭취해 병에 걸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하지 않은가? 왜 식품업계는 인체에 해로운 식품첨가물을 사람이 먹는 음식물에 투여하는 것일까? 첨단과학의 시대를 사는 국민은 순진해도 너무 순진하다.

‘설마 사람이 먹는, 특히 어린이들이 먹는 음식에 어떻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본은 순진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비롭지 못하다.

자본주의, 상업주의 혹은 신자유주의로 대변하는 자본의 속성은 도덕이나 윤리와는 거리가 멀다. 돈이면 사람 몸속에 독극물이 든 식품첨

가물도 마다하지 않고 팔겠다는 것이 자본이다.

자본의 본질은 '이윤의 극대화'. 즉 '이익'이 되는 것이 선(善)이다. 자본의 속성인 본질을 알지 못하고 현대를 산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건강을 자본에 저당 잡혀 살고 있다는 뜻이다.

입맛은 길들여지는 것이다. 부엌이 사라지고 있다. 전자레인지만 있으면 부엌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인스턴트 천국이다.

식습관 개선과 균형 있는 식단을 위해 시작한 학교급식이 부자급식이라며 물매를 맞고 있다. 식습관의 개선과 균형 있는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학교급식이 과연 부자급식일까?

오염된 먹거리 앞에 무방비 상태로 내던져진 아이들에게 식습관 개선보다 더 급한 일이 있을까?

사는데 바빠 슈퍼나 마트에서 구매할 인스턴트 식품으로 끼니를 때우는 현대인들에게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

## 여든 둘 시아버지에게 청소를 시키는 이유

글 • 이정숙(수필가)

여든 둘이나 되신 시아버지에게 청소를 시킨다고 했다. 손수 빗자루질을 하고 걸레를 빨아 방을 닦고, 이젠 이력이 붙어 시아버님이 청소를 아주 잘하신다고 했다. 순간 당황했다. 우물쭈물하다가 대꾸할 타이밍을 놓쳤다. 내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지금이야 ‘여든 둘이 그다지 늙었다 할 수 없지만 불과 15년 전만 해도 상당히 연로한 편에 속했다. 그런 시아버지에게 당신 방을 청소하게 한다고? 며느리가 인정머리 없거나 독살맞은가?

아니면 홀시아버지 모시는 게 귀찮아서? 짧은 순간, 혼자 별별 상상을 다했다.

“그러라도 하지 않으면 종일 꼼짝도 안하고 하루를 무위하게 보내시

거든요.”

종일 외출 한 번 하지 않고 방안에만 틀어박혀 꼼짝도 않으시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무력해진다는 것이다.

처음에 당신 방 청소를 손수 하시라고 했더니 무척 섭섭해 하시더라고 했다. 당연하다. 일생, 집안일은 여자들이나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사셨을 테니. 하지만 워낙 며느리가 단호하게 말씀드리자 거절도 못하고 마지못해 걸레를 잡으셨다. 지저분하고 맘에 들지 않게 청소하셔도 내버려뒀다. 안 하는 것보다야 낫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시아버님의 청소 실력은 날이 갈수록 좋아졌다. 나 중엔 그 범위를 넓혀 거실을 청소해

주실 때도 있고 가끔은 며느리나 손주들 방까지 청소해주실 때도 있다고 했다.

그녀는 시아버지를 청소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실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시아버지는 공원이라도 돌다 오시라는 며느리의 성화에 밀려 하루에 한 번은 꼬박꼬박 운동도 하신다고 했다. 그녀의 의도는 크게 성공한 셈이다. 무력하게 방안에만 계시던 시아버지의 건강을 어느 정도 담보해 주었고 여든 여덟이라는 연세가 지 큰 병 없이 살다 가시게 했으니 말이다. 그녀의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눈치 때문이 아니라 가족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소를 하셨다면 더없이 좋았을 일이다. 자신도 행복하고 가족 모두가 두루 행복했을 테니 말이다.

며칠 전, 할머니 두 분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 그 중 한 분은 이미 배

우자가 돌아가셨지만 한 분은 아직 살아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점심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 여쭙봤다.

“알아서 먹겠지. 이젠 밥도 안 차려준다.”

할아버지의 성정이 얼마나 괴팍하신지 익히 아는지라 그래도 괜찮으실까 염려가 되었다.

“이젠 내 한 몸 건사하는 것도 귀찮아. 그런데 영감 수발까지 들라면 못하지.”

그럴 만도 하다. 할머니는 그 몸으로 어떻게 세상을 사실까 싶을 만큼 쇠약하시다. 건강도 좋지 않으신 데다 일생 할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다 보니 항상 얼굴에 그늘이 짙다. 귀찮아. 다 귀찮아. 독백처럼 내뱉는 말씀이 허언으로 들리지 않는다.

재떨이 가져와라. 물 가져와라.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할아버지는 군주였다. 당신은 식사하실 때 빼고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반항하는 가족에겐 가차 없었다. 누

구라도 예외가 없었다. 하고 싶은 말이 산더미였으나 어느 누구도 변변히 저항해보질 못했다. 저항의 대가는 늘 무자비한 폭력으로 돌아왔으니까.

자식들이 성장하자 아버지의 부당한 권위에 슬금슬금 반기를 들었고 날이 갈수록 그 강도는 더해갔다. 하지만 아무리 부딪치고 깨져도 완고한 아버지의 아성은 무너지질 않았다. 아버지를 포기한 자녀들이 하나 둘 떠났다. 그렇게 떠난 자녀들은 다시는 아버지를 찾아오지 않았다. 당신 홀로 외로울 법도 하지만 할아버지의 독선과 아집은 바위처럼 단단했다. 당신을 떠받들지 않는 가족들이 나쁘다고만 생각할 뿐이다.

이젠 당신 두 부부만 남았다. 하지만 거의 남남이나 마찬가지로 밟은 해놓지만 식사하라고 권하지도 않는다. 할아버지도 포기했는지 늙은 아내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모든 걸 당신 스스로 해결하신다. 동토다. 그 가정은 이미 풀 한포기 나지

않을 꿈꿨던 땅이 되어버린 것이다.

적당히 살다 죽어지지 않는 것이 재앙인 시대가 되었다. 여든이 넘었지만 그분들 역시 앞으로 얼마를 더 한 공간에서 부대끼며 살아내야 할지 알 수가 없다. 비둘기처럼 서로 오손도손 정다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만 그런 상태라면 한 달도 길다. 참담한 노후다.

행복하지 못한 노년은 재앙이다. 비단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다. 부부가 저렇게 등 돌리고 원수처럼 오래 사는 건 가난한 것보다 더 끔찍하고 슬픈 일이다. 청소든 설거지든, 할 수 있을 때 힘닿는 데까지 아내를 도와야 한다. 체면이나 허세가 내 노년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연금이나 보험 뺑뺑하게 들었다고 거들먹거릴 일도 아니다. 그것들 역시 바람처럼 부질없다. 내 삶이 행복하지 못한데 돈이 다 무슨 소용인가.

## 나눔 실천 이야기

글 • 김광진

우리민족은 가난한 시절에는 많은 나눔 실천으로 살아온 민족이라 생각을 한다. 내가 어린 시절에도 친족 어른신께서 우리집안이 농촌에서는 머슴까지 두고 살다가 4.3사건으로 몰락하여 진압 군인들이 분대초소로 사용하던 제석사 절 앞에 개울가에서 움막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서 친족 어른신이 거주하는 곳에 정착을 하라고 주선을 해주셨다.

2살에 피난을 와서 움막 생활을 청산하고, 내가 유년시절과 청년시절을 보낸 제주시 이도2동[九男洞]에 정착을 안내 해주신분이다.

어린 시절에는 한 마을에 장사나도 동네 분들이 모여들어 장례식을 성대히 지내고, 농촌에서 일거리가 있어도 서로 돌아가면서 나눔으

로 원력을 동원하여 해결을 하곤 했다. 애경사가 있으면 음식도 나눠먹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옷어른 댁에는 제사지낸 음식을 갖다 드리 기까지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이제는 핵가족과 주거문화가 벽으로 막는 문화를 창달하다보니, 개인 주거 보호의식으로 나눔이 좀 사라져가는 실정이라 생각을 한다. 사무실 문화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관공서 건물이 모두 유리창으로 구성되어 벽을 구성해서 옆 사무실에서 무엇을 하는가를 모두 드러내 놓고 살았는데, '70년대 중반부터인가 공공 건물을 신축하면서 모두가 벽으로 둘러 싸여서 이웃과 소통이 절단되는 환경이 조성되어 이제는 개인정보

보호론이 대두되는 시점이다.

나는 지난 '87년 7월에 고향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정든 고향을 떠나면서 제주에서 출발한 공직자가 광주를 거쳐서 대전에 제2고향이라 할만치 20여년을 정착하고, 직장은 천안에 중앙소방학교를 거쳐서 다시 서울소방본부에서 5년6개월간의 말년을 보내고 정년하고서 다시 친족 어른신의 배려로 조상의 고향인 전남 무안에 위치한 초당대학에서 6년간이나 강단에서 후학들을 양성하다가 이제는 제2의 인생을 동네 꽃길 조성을 하면서 즐기분하게 지내고 있다.

이곳에 정착한 사정도 제주에 입도조가 14세[仁忠 公]께서 고려 말에 강화좌령랑장[김포위수사령관]의 무관 벼슬을 버리시고 제주에 입도하시고, 나는 입도 21대라서 6백 년 만에 조상의 고향으로 환도를 한 셈이다. 나에게 정년해서 고향 제주에 안들어온다는 친족들의 성화에는 앞에 말한 조상고향 환도를 주장하기도 한다.

어린 시절에 우리가 못살면서도 스님이 시주를 오시면 어머니가 필히 쌀독을 긁어서라도 시주를 하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못 먹어서 병이 난 것을 제석사 주지할머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살아나고 지금까지 생존해 있음을 고맙게 생각을 한다.

나는 88년 6월부터 대전에 정착하면서 정기적인 나눔을 오웁진 신부님이 운영하시는 꽃동네에 정기회원으로 당초에는 1천원에서 이제는 월 정기 5천원으로 지금까지도 기부를 한다.

다시 불우청소년을 돕는다는 생각에서 어린이 재단에 지정기탁을 2명을 선정하여 매월 정기 기부를 하고, 주지스님과의 인연으로 경북 김천에 위치한 청암사, 조상님들의 위패를 모신 제주 원당봉에 위치한 원당사, 내 처가 안치된 대전 안산동에 위치한 구암사, 서울의 맑고 향기롭게 나눔 회원으로 비정기적 시주를 하기도 한다.

나는 남들과 달리 중학교 2년부터 용돈을 벌기위한 신문팔이를 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경영에는

남달리 앞서가는 생활을 하고 있다. 특히 자녀교육도 정도에 맞게 1남3녀를 모두 4년제 대학을 졸업시키고, 직장을 정년하기 전에 4남매를 모두 결혼도 시키고 이제는 손자들이 9명이 모이면 정신이 없을 지경이다.

요즘은 서울재직 시부터 내가 타인으로부터 받은 혜택에 대한 보답으로 남에게 소주 한잔이라도 먼저 사주는 생활에 익숙하여 지금은 누가 만나자고하면 내가 점심이라도 접대를 할 마음으로 나가서 만남을 주선도하고 불려가도 참석을 한다.

제주 고향에 갈 때마다 과거에 신세진 분들[초, 중, 고, 대학 은사님, 직장 동료, 상사, 직장을 주신 해 주신 분, 기타 신세진 지인들을 모시고 동문시장 단골집에서 오찬이나 만찬을 벌이기도 한다. 형님 친구 분들도 10여분 모셔서 오찬을 하시는데 3시간정도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모신일이 있다.

종친님들이 나를 아껴주신 덕분에

대학 강단에까지 서게 된 것도 평소에 자세를 낮추고 찾아보는 나눔의 덕으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마무리하는 기분이다.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남을 사귀려면 조건 없이 오가는 분들에게 소주나 차 한 잔을 나누다 보면 자연히 친분이 생겨서 형제보다 더욱 돈독해진다는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이곳 전남 무안에서도 목욕탕에서 사귄 동갑네가 서로 알기는 몇 년이 안 되어서도 손꼽친구같이 다정하게 지내고 있고, 동네에도 내 나이 또래 친구들과 동네 동생들에게 동네 쉼터를 마련한 휴게소에 한 달에 한번 정도라도 소주, 맥주 한 박스를 사다 놓으면 대낮에 휴식 차 놀러온 동네 친구나 동생들이 즐겁게 마시고 한담을 늘어놓곤 한다.

우리사회가 산업화가 급성장을 하면서 개인주의가 팽배 하다 보니, 나눔 문화가 점차 사라지는 모습이 아쉬울 따름이다.

\* 김광진(맑고 향기롭게 회원) : 소방관 36년 정년, 85년 시수필 등단. 초당대 조교수 역임

## 오염 식품을 제한하는 ‘먹지마 건강법’

목욕을 기피했던 중세 유럽에서 발전한 향수. 현재 우리의 건강에 대한 생각은 중세 유럽의 관점에 머물러 있다. 몸을 먼저 깨끗이 한 다음 향수를 뿌리는 것이 상식이다.

오염 식품을 멀리할 생각 대신에 몸에 좋은 것만을 찾는 모습은 때가 긴 몸에 그냥 향수를 뿌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몸보신 먹을거리만 찾는 플러스 사고에서 벗어나 오염 식품을 제한하게 되는 마이너스 사고를 가져야 건강해진다는 손영기 한의사의 ‘먹지마 건강법’은 세 가지만 먹지 않으면 건강해진다고 한다.

먼저 육류의 경우 대부분의 가축들이 항생제를 먹고 자라므로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체내에 항생제가 그대로 쌓이게 해도 된다. 또 육류에는 성장 촉진 호르몬이 많은데 이는 체격은 커지고 체력은 약해지는 현대인의 심각한 질병인 비만의 주범이다. 심지어 이 호르몬은 암세포도 자라나게 한다.

두 번째 수입 밀가루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들어갈 수 있는 방부제, 살균제, 살충제 등이 문제. 또 수입 과정에서 오래된 밀가루는 피부와 근육 뿐 아니라도 몸속의 내장까지 차지해 면역력을 떨어뜨려 준다.

세 번째 인스턴트 식품에 대해서는 긴 말이 필요 없을 것이다. 육류, 밀가루, 인공 첨가물, 화학조미료 등이 한데 섞여있는 오염 식품의 대표격으로 절대 먹지 말아야 한다.



### 중앙모임 소식 (02-741-4696~7)

#### ‘2015년 사랑 나눔 연합바자회’ 봉사 참여해주세요

10월 17일(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될 ‘사랑 나눔 연합바자회’에 본모임도 천연화장품, 리폼용품, 먹거리 판매 부스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함께 하실 자원봉사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맑고 향기롭게는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손가정을 위해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말반찬을 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반찬 나눔 활동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전에 끝나는 활동으로, 조금 힘든 일도 마다치 않고 쉼 없이 해주실 수 있는 봉사자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 봉사자와 함께하는 숲기행

- 일정 : 11월 7일(첫째 토)
- 대상 : 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 봉사자
- 접수 : 10월 5일부터 전화, 방문(선착순 40명)
- 참가비 : 20,000원(봉사자에 한해서)
- 참가비 환불 원칙 : 참가비 환불과 이월은 출발 5일 전까지만 가능하며, 이후 취소시 후원금 처리하오니 신중하게 신청해주세요.
- 참가비 입금계좌 : 외환은행 301-22-00270-1 (예금주 : 맑고향기롭게)
- 숲기행 장소 : 강원 영동 지역의 자연 환경과 문화 유적(미천골 생태탐방 → 선림원지 → 한계사지 및 주변 설악산국립공원 생태탐방)
- 숲기행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따르릉~ 전화 말벗 봉사활동

전화말벗 지원 활동은 결식이웃 후원 사업 대상자 중 홀로 어르신을 비롯하여 장애인 등에게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하여 일상적인 이야기와 건강, 영양 상태, 생활환경 변화를 지켜보고 더불어 대상자의 소외감과 고독감을 줄여드려 혼자가 아니라는 외로움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입니다. 함께하실 봉사자를 찾고 있으니 대화기법·상담 등에 소질이 있는 분은 함께해주세요.

#### \* 진인노인요양원 정기봉사

진인요양원 자원활동은 오전에는 시설 청소, 주방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어르신과 어울려 민요, 국악 등 놀이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정기적으로 꾸준히 참여하실 봉사자를 찾습니다. 매월 둘째 일요일 오전 8시 30분, 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에 모여 이동합니다.

#### 정기 자원봉사자 모집

\* 맑고 향기롭게 반찬 나눔 조리 활동



**\* 모회원 정기봉사**

모회원 자원활동은 농사일 돕기와 시설 정비 활동을 주로 합니다. 매월 첫째 일요일 오전 8시 30분에 지하철 4호선 사당역 10번 출구(한전 남부지점) 앞에서 모여 이동합니다.

**\* 의류 리폼(재단, 디자인)**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환경운동으로 안 입고, 못 입는 자투리 천을 이용하여 각종 소품이나 재활용품을 만들어 녹색나눔장터를 통해 판매, 수익금으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적립합니다.

**\* 친환경 용품 만들어 주실 분**

가정에서 친환경 수세미, 리폼한 액세서리 등 친환경적이거나 재순환용품을 만들어 기증해 주실 분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기증해주신 용품은 장터에서 판매하고 수익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전화해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후원금액, 원하시는 출금 일자 등을 말씀해 주시면 편하게 신청됩니다. 지로용지에서 CMS로 변경하면 환경을 살리는 작은 실천과 더불어 봉사자와 사무국의 일손을 줄일 수 있고, 운영 경비를 절약

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다.

**일시 후원**

뜻 깊은 일이나 기념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분회 회원은 아니지만 분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지를 받아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 인적사항이 필요하므로 분회 회원이 아닌 분은 후원하신 후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용 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 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영수증으로 은행에 가지도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 활동 : 2일(금)/오전 10시~12시/세계일화실
- 맑고 향기롭게 강연회 : 25일(넷째 일)/길상사 설법전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 활동 : 목, 금요일(1,2,15,16,22,23,29,30일)/오전 9시 30분~오후 2시/김치 나눔 : 3월~11월 둘째 목요일(8일)/맑고 향기롭게 반찬 나눔 조리장(길상사 주차장 위)/양념이 물어도 괜찮은 옷차림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 활동 : 매주 월요일(5,12,19,26일)/오전 10시~오후 2시/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등/수시 모집 중/자원 활동가 교육 후 봉사
- 모회원(치매노인 요양시설) 농사 일손 돕기 정기 자원 활동 : 첫째 일요일(4일) 오전 8시 30분/지하철 2, 4호선 사당역 10번 출구 한전 남부지점 앞/간편복 및 면장갑(농사일 돕기)/일반 자원 활동
- 진인노인요양원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 자원 활동 : 둘째 일요일(11일)/오전 8시 30분/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
- 전화말벗 봉사자 정기모임 : 넷째 화요일(27일)/오후 1시30분/사무실
- 아름다운 만남(청소년과 독거어르신과의 만남) : 셋째 토요일(17일)

-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 캠페인 : 4일, 25일 (첫째, 넷째 일요일)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 : 7,14,21,28일(수) 오후 1시30분(삼투,로션,에센스,비누&스킨)/세계일화실/선착순 최대6명/재료비 본인 부담
- 의류재활용 봉사모임 : 매주 화요일(6,13,20,27일)/세계일화실
- 사랑나눔 종교연합바자회 : 17일(셋째 토)/성북초등학교
- 녹색나눔 장터 : 25일(넷째 일)/길상사 경내

◆ 일반사업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3-129  
외환은행 117-13-60373-4  
농협 029-01-199412

◆ 결식아웃후원계좌

국민은행 817-01-0255-458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13-787953

◆ 장학금 후원계좌

외환은행 141-22-01683-9

- 예금주 : (사)맑고 향기롭게
- 문의 : ☎02)741-4696





### 대전모임(중앙직할)

- 지혜원(아동양육시설)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잠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 충남대 대불련 지원

후원 : 우체국 312850-01-000142

(사)맑고 향기롭게 대전지부

### 대구모임 (053-753-8883)

- 정기 홍보활동 : 맑고 향기롭게 스티커, 홍보책자, 동전 모금통을 관공서, 지하철역 등에 배포 및 홍보활동
- 홀로 어르신 밀반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 매주 수요일/11시-음식조리, 19시-말벗(배달)봉사/자원봉사자수시모집
- 어르신 웃음교실 및 토요 경로급식 : 매주 토요일/10시 30분-음식 조리/11시 30분-웃음치료강의/12시30분-점심 차담/2시-마무리
- 연꽃 피는 집(치매노인 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 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목욕, 식사도움, 빨래정리, 말벗
- 대구노인종합복지관 주방보조 및 정리 봉사 : 매월 첫째 화요일 11시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밀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 **보현행원** : 무료노인요양원으로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 무료급식소(자비 공양의 집),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 :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초등-중등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오후 1시30분/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 수세미 판매
- **문화기행** : 문화유적답사, 숲기행, 강길따라걷기/주변 환경 정화활동
- **위안부 할머니 자원활동** :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자원활동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열린 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사무국

후원 : 농협 932-01-002933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 부산모임 (051-898-2672~3)

- **사회복지시설 정기 활동**
    - 장애인 이동목욕활동 : 매주 수요일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무료 급식** : 매주 목요일
    -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 : 매월 1째, 3째주 화요일
    - **부산시립의료원 노인전문병원 목욕활동** : 매주 금요일
    - **용두산 공원 무료급식** : 매월 둘째 수요일, 셋째 목요일, 넷째 금요일, 넷째 토요일
    - **해운대 사랑의 이동 밥차 무료급식** : 매월 둘째 목요일
    - **지역정화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 **상상구장애인복지관** : 매월 셋째 화요일
    - **부산진구 독거노인 밀반찬봉사** : 매주 수요일
    - **연화원 대청소** : 매주 목요일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홀로어르신 밀반찬 배달** : 매주 금요일
  - **불우이웃 돕기 & 나눔 활동**
    - 명절, 연말 불우이웃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청소년 가장 장학금 지원 및 의료, 생계비 지원
    - 홀몸어르신 무료 건강검진
  - **부산시민공원 정화활동** : 매월 23주 토요일
- 후원 : 우리은행 206-07-151128 / 이상오

###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령,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 운영/오전9시30분~오후2시/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김치 담그기/ 매주 토요일 공양 나눔 센터)
  - **자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 **광주모임에서는 동구 산수동에 지역 회원들의 친목과 불자들의 소통, 나눔의 공간으로 맑고 향기로운 가게 '무소유'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독서모임** : 법정 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매월 둘째 수요일/사무국
  - **노래모임** :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장학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바자회 운영** :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 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 환경 및 사찰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천연 세숫비누, 빨래비누, 천연 화장품
-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중양절기도**

- 일시: 10월 21일(수)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다라니기도**

- 일시: 10월 3일(토) 오후 8시
- 장소: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10월 10일(토) 오후 8시 30분  
~ 10월 11일(일) 새벽 3시 50분
- 장소: 극락전

**관음재일**

- 일시: 10월 6일(화)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초하루기도 및 법회**

- 일시: 10월 13일(화) 오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지장재일**

- 일시: 10월 30일(금) 오전 9시 50분
- 장소: 지장전

**수능 기도자 봉정암 성지순례**

- 출발: 10월 7일(수) 오전 5시 50분
- 도착: 10월 8일(목) 오후 6시
- 참가비: 6만원 (인당)

일반 신도님들도 참가 가능합니다.

**사랑 나눔 종교연합바자회**

- 일시: 10월 17일 (토)
- 장소: 성북초등학교

나는 사용하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유용한 재  
활용품을 모아 10월 10일까지 중무소로 보내  
주시고, 물품 협찬 업체 선정에도 마음모아 주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말 선 수련회**

- 232기: 10월 17일 ~ 10월 18일
- 233기: 10월 24일 ~ 10월 25일
- 장소: 설법전
- 참가비: 5만원
- 접수: 길상사 홈페이지(입금 선착순 마감) /  
교무실(02.3672-0036)

**동절기 저녁예불 및 중무행정업무**

**시간 변경**

10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 길상사 저녁 예불  
시간이 오후 7시에서 1시간 앞당겨진 오후 6시  
로 조정되며, 길상사 중무실과 맞고 향기롭게  
사무국 업무는 5시 30분에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11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법회/기도명	일정	시간	장소
수능입시기도 천도재	11월 11일	오전 11시	극락전
공덕주 김상화보살기일	11월 18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추계관음기도회향	11월 25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동안거결제	11월 26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다라니기도	11월 7일	오후 8시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11월 14일	오후 8시 30분	극락전
관음재일	11월 5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초하루법회	11월 12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지장재일	11월 29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극락전기도	매일	새벽 4시 오전 9시 50분/저녁 6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일	새벽 4시 40분 오전 9시 50분/저녁 6시	지장전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설법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소강당
중·고등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세심당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거사님 정기법회	매월 첫째·셋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설법전
문수회 정기법회	매월 셋째주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보현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 30분	지장전
보리회 정기회의	매월 둘째주	오전 11시	도서관
합창단 정기연습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소강당
천수회 정기법회	매월 첫째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설법전
새신도 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소강당



## '2015년 사랑 나눔 종교연합바자회'에 초대합니다.

2008년부터 서울 성북구 성북동에서는 <종교는 다르지만 나눔은 하나다>라는 주제로 덕수교회와 성북동성당 그리고 「맑고 향기롭게」근본도량 길상사가 종교의 벽을 넘어 한마음으로 연합바자회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일곱 번째인 이번 바자회는 다양한 먹거리와 식재료, 의류, 생활용품 등이 마련되며, 수익금은 전액 장학기금으로 사용됩니다.

뜻 깊은 화합의 자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우천 시에도 바자회는 열립니다.)

- 일정 : 10월 17일(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4시
- 장소 : 성북구 성북동 성북초등학교 운동장
- 문의 : 길상사 종무실 02.3672-5945

## 길상사 템플스테이 '주말 선 수련회'에 초대합니다.

나를 만나고, 서로를 알게 되는 곳.  
참 나를 찾고, 새로운 인연이 이어지는 공간,  
그 곳이 바로 산사(山寺)입니다.  
머물고자 하는 이들을 머물게 하고,  
떠나고자 하는 이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우리의 산사에서 템플스테이는 시작되었습니다.

템플스테이는 행복입니다.

예불, 참선, 다도 등 사찰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수행자의 삶을 엿보고,  
다양한 수행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불교문화를 전합니다.

길상사 템플스테이는 셋째, 넷째 주말에 진행됩니다.

- 문의 : 길상사 교무실 02.3672-0036

